

■ 편집자의 글 ■

『호모미그란스』 28호는 ‘공동체의 현실과 이상’을 논의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고가영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유입과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의 확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차 대전 이래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전쟁 난민을 발생시키면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로 유입된 1200명 정도의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을 맞이하는 광주 고려인마을 공동체를 살펴본다. 고려인마을은 그곳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자녀들을 입국시킨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고려인의 한국 입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논문은 고려인 입국 초기에는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입국이 이뤄졌지만, 점차적으로 일가족 전체, 여성과 아이들, 무국적자 고려인들, 노년층들이 입국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가영은 우크라이나 고려인 난민들이 고려인마을에서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로 불린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편협한 태도를 비판한다. 고가영은 한국 사회가 ‘특별기여자’나 ‘재난당한 동포’라는 특별한 수식어를 필요로 하는 선별적 환대에서 벗어나, 난민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재혁의 「미셸 슈발리에의 공동체적 상상력: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지중해 시스템」은 19세기 초 유럽의 경계를 넘어 동·서양 문명의 공동체를 수립하려는 생시몽주의자 미셸 슈발리에의 ‘지중해 시스템’ 기획을 분석한다. 논문은 생시몽의 유럽 공동체 기획을 지중해 중심의 지구적 공동체 기획으로 확장하는 ‘지중해 시스템’ 기획은 철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로 구성되는 물질적 네트워크와 은행이 대표하는 정신적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동양과 서양의 ‘보편적 연합’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생시몽주의 고유의 미래 전망으로 해석한다. 생시몽 역시 영국과 프랑스 민족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적 조직 수립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 수립하고자 했다면, 슈발리에의 산업을 뚜렷하게 정치 전면에 내세우며 생시몽주의 교리에 따라 유럽과 비유럽을 통합하는 거대 서사 ‘보편적 연합’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철도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실현하고자 했다. 논문은 슈발리에 기획은 이후 서구인이 지중해에서 펼친 식민과 제국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에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호모미그란스』 28호는 경제학과 미학 분야의 일반논문 2편을 소개한다. 먼저, 최강화의 「이주민의 순이동률 변동에 대한 국가취약지수의 영향 분석」은 국가취약지수가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미치는 영향을 집합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논문에 따르면, 국가의 취약성이 커질수록 이주민의 취약국가로의 입인은 작아지게 되고, 반대로 취약국가로부터의 이탈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응집력 지수, 정치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그리고 외부 개입 등과 같은 다섯 개의 국가취약지수 중에서 어떠한 원인조건과 원인조건과의 배열조합이 이주민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충분조건인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강화는 연구에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이용한다. 연구 결과 경제적 취약성과 외부 개입의 부재가 이주민들의 순이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조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논문은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은 응집력 취약성이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외부 개입의 부재가 이주민의 순이동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주요한 영역에서 취약성이 없는 경우에 이주민의 순이동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홍상현의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비(非)서사적, 사적(私的), 시적(詩的) 다큐멘터리 사진 - 『ROUTE 44』의 사진적 방법론」은 2023년 출간된 저자의 사진집 『ROUTE 44』에 관한 작품론이다. 홍상현의 설명에 따르면, 『ROUTE 44』는 ‘44번 국도’를 ‘산업화 한국’이 남긴 하나의 슬픈 흔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사회 구조 안에서의 ‘은퇴세대’를 ‘산업화 한국’이 낳은 또 하나의 흔적으로 설정하고, 그 세대의 일원인 작가의 아버지 개인의 ‘생활의 이주사’를 시작으로 ‘지금의 44번 국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미지에 담고 있다. 홍상현은 『ROUTE 44』의 이미지들을 몇 가지 특성으로 분류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비서사적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일반적으로 기록으로서의 사진은 주제 안에서 구성되는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ROUTE 44』의 이미지들은 비서사적이며, 파편적이고, 기록의 열거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기록으로서의 사진과 달리 예술적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큐멘터리로서의 사진의 역할을 보여준다. 『ROUTE 44』는 문자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메타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詩 언어에서처럼, 메타모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예술적 표현으로서의 사진적 기록으로서, 로버트 프랭크, 워커 에반스, 그리고 앳제의 ‘다큐멘터리’ 사진에서 그 방법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작업이다.